

고향의 달

오늘 저 달은 추석날 보름달이다. 달무리에 얼굴을 내민 저 달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의 달>이 있다. 되돌아보면 지치고 외로울 때, 혼자라고 여겨져 목놓아 울고 싶을 때, 저 달은 내 눈앞에서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고향을 떠나 처음 객지 생활을 할 때, 혼자 여행을 떠나 이름 모를 곳에서 야영을 할 때, 군에 입대하여 훈련사관 생활을 할 때, 사업에 실패하여 죽음을 생각할 때, 이민을 와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꿈쩍달짝 할 수가 없을 때, 타향도 아닌 타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기는 커녕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저 달을 그렇게 바라보았다. 이민 와서 처음 몇해동안은 저 달만 보면 미칠 것 같았다. 고요한 가을 밤에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혼자서 소주를 마시면서 저 달을 바라보고 있으면 등뒤에서 큰 딸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달빛 소나타> 시리즈를 연주해 주던 날들이 바로 잊그제같다. 아버지는 달을 보고 울고, 딸은 피아노 악보를 보고 울고, 서로가 그렇게 말없이 울고 있었지도 모른다. 지금은 결혼해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큰 딸아이가 어제밤에는 화상통화로 온가족이 한참동안 (약 2 시간정도?) 수다를 떨었다. 우리집 수다는 엄마와 딸이 매일 통화하는 기본 수다가 한시간이다. 둘째딸과 막내 아들은 추석이라고 어제 모두 집으로 돌아 왔다. 서울사위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을 추면서 장모에게 재롱을 떨고, 장모는 한인 추석 대잔치에 나가서 기타치며 부를 노래를 사위에게 들려준다고 야단이였다. 처제(둘째딸)는 형부(사위)와 코드가 잘 맞다나 하면서 수다를 떨고 아들은 강아지와 수다를 떠다. 참으로 못말리는 가족이다. 또 오늘 새벽에는 5시부터 차례음식을 만든다고 아내와 자식들이 부엌에서 수다들을 떠는 바람에 잠자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추석과 설날 차례와 아버지 제사는 꼬박꼬박 지낸다. 그것은 내 어머니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가족은 무슨 날이면 반드시 만나야 하고,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나의 단순한 고집때문이다. 하지만 아내가 차례상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내 혼자 여간 곤욕스러울텐데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니 아내는 아마도 이씨집안 귀신(?)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나 보다.

내가 이런 잡다한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민 와서 지금까지 나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잘 살아서 이민 온 것이 아니라, 이민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분들이다. 신분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든, 혹은 생활형편이 어려워서이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저 <고향의 달>을 바라보며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고향을 갈 수 있는데 안가는 것과, 갈 수 있는데 못가는 것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감옥 창살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다르다. 같은 이민자라고 해도 처해진 입장에 따라 많이 다르다. 이민 와서 성공한 자와 아직도 가난한 자와는 많이 다르다. 가난한 이민자에게는 교회도 지역사회도 낯설다. 가난한 이민자는 아픔도 고통도 혼자 알아야 한다. 하지만 <고향의 달>은 평등하다. 어머니의 품속 같다. 잘났든 못났든 누구에게나 각자 <고향의 달>이 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평등하시듯이 저 달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저 달 속에 내 과거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저 달 속에는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가족이 있다. 나의 어린 시절이 있고 내 꿈이 있다. 나의 선생님들과 나의 고향 친구들이 있으며 나의 첫사랑이 있다. 저 달 속에 있는 나의 보물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거니와 누가 훔쳐갈 수도 없다. 우리는 저 달을 보면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

철강 왕 카네기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 그의 사무실에는 볼 품없는 그림 한점이 걸려 있었다. 이름없는 화가의 그림인데 그저 커다란 나룻배 한척과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그림이다. 그 나룻배 밑에는 화가가 적어놓은 말이 있는데 “반드시 밀물은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가 밀물이 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시련과 고통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던 그림이었다.

차동엽 신부님이 쓴 <무지개 원리>에 목표달성을 위한 5 단계 시스템이 있다. 첫째, 강한 바램을 갖는다. 즉 ‘꿈을 품으라’는 것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목표를 정해 놓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사람들은 목표가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둘째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크다.

이 믿음을 공고히 해 주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질 때, 믿음도 더욱 확고해진다. 세째 성취언어로 말한다. ‘말을 다스리라’에서 긍정의 3P, 즉 긍정적이고, 현재형이며, 개인적인 문장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네째, 성취 습관으로 행동한다. 여러가지 습관중에 ‘정보 수집의 습관’과 ‘계획의 습관’ 그리고 ‘시각화의 습관’이 필요하다. 이는 무지개원리의 ‘꿈을 품으라’와 유사하다. 다섯번째,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다면 목표 또한 목표라고 할 수 없다.

처어칠의옥스퍼드 대학 연설을 기억하라.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7 번의 반복된 무구로 유명하다. 저 <고향의 달>을 바라보며 청승맞게 소주나 마시지 말고, 그리운 사람에게 <가을 편지>나 한번 써보자..